



한국지방재정공제회 www.klfa.or.kr | 발행인 권혁인 | 발행일 2007. 12. 17 |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 지방재정회관 T_02)3274-2114 F_02)3274-2009

공제회 소식

2007 정부회계세미나 및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공제회는 11월 29일, 30일 양일에 걸쳐서 행정자치부 및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강원도·강릉시의 후원을 받아 강릉 현대호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7 정부회계세미나 및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 및 워크숍은 2007년도에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학계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방공무원, 학계인사 및 지역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금번 행사는 제1부 세미나, 제2부 워크숍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개회사를 하고 있는 권혁인 이사장

먼저 제1부에서는 권혁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개회사, 황준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과 김

경호 한국정부회계학회회장의 축사, 그리고 한봉기 강원도 부지사의 환영사로 이어지는 개회식과, 강릉시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사례’ 발표, 심재영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가 ‘학계전문가가 분석한 정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을, 최대규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인이 분석한 정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표하였으며, 반선섭 강릉대 교수, 박영홍 관동대 교수, 황재연 한림성신대 교수, 송상훈 행정자치부 사무관, 김경문 감사원 감사관, 윤영원 안전회계법인 전문 등 6명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2007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면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부채실사 및 평가점검 결과 설명회에 이어, 복식부기 관련 연구용역 설명 및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무결산 분야의 추진상황 및 자산자료 구축 설명을 포함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시연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제회는 정부회계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부문의 연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등 관련 전문연구단체와 지속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월례 회의 개최

공제회는 12월 2일(월) 대회의실에서 본부 및 지부의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합동 월례회의를 가졌다.

11월의 첫 월례회의에 이어 12월 월례회의에서는 권혁인 이사장은 “향후 우리 공제회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본부 및 지부의 업무강도가 예전보다 강화될 것이므로 고객인 자치단체와 함께 하고 있는 시도 사무장들을 비롯한 전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합동 월례회의는 조직의 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시도 사무장을 통한 지방현실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중 업무계획 및 개선·건의사항 등에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 행정자치부와 제2차 정책협의회 개최

공제회는 11월 6일 권혁인 이사장과 행정자치부 황준기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 재정정책팀장, 교부세팀장 및 본회 각 팀장 등과 함께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혁인 이사장은 지난 5월 실시한 제1차 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연구조사팀 신설, 지방재정세미나 개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방재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평가하고 제2차 협의안건인 옥외광고물 사업 준비등 6개 안건에 대하여도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황준기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금번 협의회를 통하여 공제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권혁인 이사장도 이러한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효율적인 지방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회 개최

공제회는 2007년 11월 5일 지난 8월말에 발주한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과제인 「자주재정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의 전략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새로운 재정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지방재정관리제도」 등 3개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지방재정학회의 강인재 회장을 비롯한 과제참여교수단 5명,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등 공무원 및 본회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여 진행되었다.

본 3개의 연구용역과제는 12월말에 성과물을 수령할 예정이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본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개정안이 지난23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하였다. 개정법에는 본회에 옥외광고센터를 설치하고, 행자부 직속의 옥외광고정책위원회를 두며, 옥외광고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크게 바뀐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국가에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옥외광고사업은 우리회 옥외광고센터에서 일괄수행토록 함으로서 본회의 사업영역 확대와 신사업 추진의 활력소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 공제회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본회에 옥외광고센터 를 설치하여 옥외광고관련 정책수립, 연구조사, 신소재·신기술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홍보·의식개혁사업, 옥외광고사업 등을 운영함으로써 본회가 우리나라의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우리공제회는 2008년도 초 옥외광고센터 개소를 목표로 준비기획단의 운영과 제반 사전준비사항을 행자부와 면밀히 협의,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2007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 및 총회 개최

공제회는 11월 16일(금) 권혁인 이사장을 비롯한 18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5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 규정개정안’ 등 3개안 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3개 안건중 2개 안건인 2008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이 총회에 부의되었다.



「지방재정」지 제5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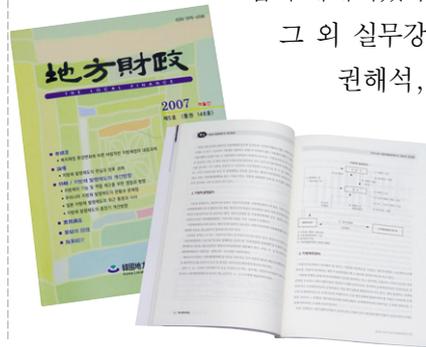
연구조사팀은 「지방재정」지 제5호(통권 148호)를 발간하였다.

권혁인 이사장은 권두언 ‘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에 생존기반을 둔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이들을 위한 사회적 기반과 지원 등은 일선의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성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주어진 현실의 지방재정 환경을 익히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집에서는 지방재정의 총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방채제도를 다루었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논문 ‘지방채 발행제도의 현실과 향후 과제’를 비롯하여 라휘문 성결대 교수의 ‘지방채의 기능 및 역할제고를 위한 쟁점과 방향’,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일본 지방채 발행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 및 강인재 전북대 교수의 ‘지방채 발행제도의 중장기 개선방향’ 등 4개의 특집이 게재되었다.

그 외 실무강좌, 지방재정관련 유권해석, 시책소개, 재테크코너 등의 각종 실무 및 교양 내용을 제5호에 수록하였다.



지부 동향

1 울산광역시지부 업무연찬회 개최

울산광역시지부는 11월 27일(화) 울산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시군구 및 공사·공단인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해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업무배상 및 지방관공선 등 공제업무 전반에 걸쳐 2008년도 공제등록을 위한 신규 및 변동사항 제출 요령 등에 대한 연찬회를 가졌다.



산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정기적인 연찬회 개최를 희망하였다.

동 업무연찬에는 약 50여명의 관련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진지하게 교육 및 토론을 벌였으며, 행사 후에도 효율적인 재

2 전라남도지부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실무교육 가져

전라남도지부는 11월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 도청 전산교육장에서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에 대한 실무교육을 가졌다.

교육에는 전라남도의 실과소 및 시군의 관련업무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하여 공유재산과 물품현황관리 및 사용계획, 관용차량 수급 및 배차 사용관리, 그리고 2008년 우리 공제회의 업무계획에 대한 협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3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공제사업팀에서는 2007년 11월 5일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담당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공제사업 홍보 및 2008년도 정기등록 설명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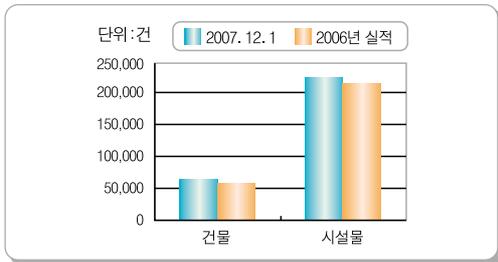
설명회를 통하여 공유재산 담당공무원들에게 공제등록의 필요성과 2008년도의 정기등록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였고, 특히 지난 9월에 있었던 태풍 ‘나리’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우리 공제회의 역할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였다.

12. 1 기준 공제사업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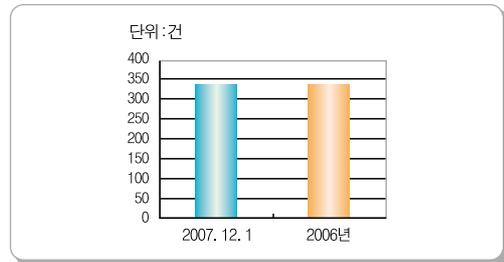
재해복구지원 221건, 27억 4천만원
 손해배상지원 2,733건,
 35억 9천만원 등 지급

공제회는 12. 1까지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복구지원의 경우 221건, 27억4천만원, 손해배상금지원은 영조물배상의 경우 2,720건, 3,292백만원, 업무배상의 경우 13건, 303백만원 등 총 2,733건, 35억 9천만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등록물건은 재해복구공제사업 291,443건(건물 58,903건, 시설물 232,540건),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영조물 45,907건, 업무배상 12,661명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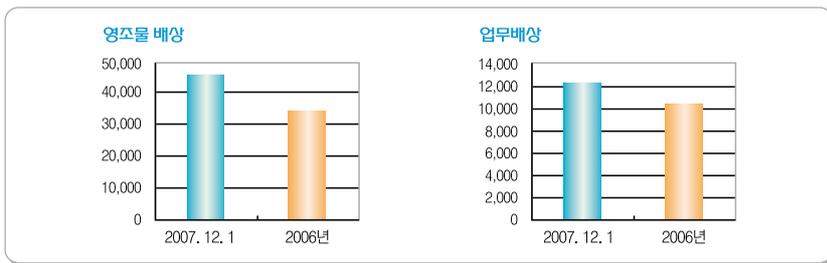
▶ 재해복구지원 등록물건



▶ 지방관공선공제사업 등록물건(선박)



▶ 손해배상공제사업 등록물건



경제상식

■ 엔캐리트레이드(Yen Carry Trade)

엔캐리트레이드란 저금리(0.5%) 엔화를 대출받아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매도하고 고금리 통화를 매수하여 환차익과 금리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말합니다.

엔캐리 자금 규모는 일본은행(BOJ)과 주요금융기관에 따르면 2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이르며, 국내에도 6조원 정도가 유입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캐리트레이드로 인하여 투자대상국가의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일조하였으나, 일본 금리인상 또는 엔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엔캐리 청산이 급격히 발생할 경우 자산가격의 하락 등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각국의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 PEF(Private Equity Fund) : 사모투자전문펀드

PEF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고 기업가치 제고 및 경영성과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기구입니다.

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연기금, 일반투자자 등 투자자)과 무한책임사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구분되고 투자대상은 상장·비상장기업에 다양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 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이들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벌처 캐피탈(Vulture capital)' 이라고도 합니다.

CRC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경영정상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요 업무로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경영정상화·매각, 부실채권 매입, 투자·자산매입, 기업간 인수·합병 중개, 회사정리·화의·파산 절차 등을 대행하여 줍니다.

■ 콜금리

금융기관들끼리 1~30일씩 빌려주는 단기자금(콜) 가운데 하루짜리 콜자금에 붙는 금리를 말합니다.

콜금리는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시중의 자금사정을 반영하고 다른 금리들의 변동을 예측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콜시장은 보통 오전 9시 반에서 밤 9시까지 열리고 콜금리는 환율과 유사하게 시시각각 변합니다.